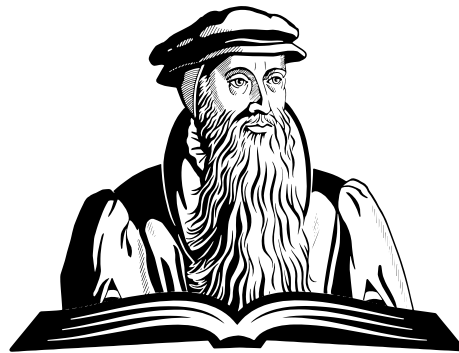

비디오 강의 학습 단계: 성경 신학

강의 23: 속죄

강의 발표자: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The John Knox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 2019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판권. 이 출판물의 어떤 부분도 출판사의 서면 허가 없이 검토, 의견 또는 장학금을 목적으로 간단한 인용을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로든 또는 이익을 위해 어떤 수단으로도 복제될 수 없습니다.

출판사, 존 녹스 연구소, P.O. Box 19398, Kalamazoo, MI 49019-19398, 미국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공인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합니다.

웹사이트방문: <https://ko.johnknoxinstitute.org>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은 스코틀랜드 자유 교회의 (continuing) 회중인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린빌에 있는 그린빌 장로교회에서 복음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www.freechurchcontinuing.org

학습단계

성경 신학

30 강의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21 장 구약 · 9 장 신약

구약 강의들

1. 소개
2. 창조
3. 타락
4. 노아
5. 아브라함
6. 족장 I
7. 족장 II
8. 출애굽
9. 시내산
10. 성막
11. 희생제물
12. 제사장
13. 유업
14. 다윗
15. 시편
16. 솔로몬
17. 성전
18. 왕국
19. 예언자
20. 포로기
21. 회복

구약 강의들

22. 성육신
- 23. 속죄**
24. 부활
25. 오순절
26. 교회
27. 연합
28. 삶의 적용
29. 사명
30. 영광

강의 23

속죄

강의 주제: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을 낮추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속죄의 사역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본문: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린도전서2:2).

강의 스크립트 23

세상은 영적인 실체들을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은 장님과 같아서 불신앙의 어둠 속에 더듬더듬거릴 뿐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보고 그것을 어리석게 생각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끔찍한 사형을 당함으로 결국은 패배한 지도자 왕, 구원자에게 있는 분명한 연약함보다 더 바보같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모습 속에는 세상이 우러러보는 그 어떤 종류의 능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멸시하는 듯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바로 그 진리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고 신성한 공의를 확인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지키심을 통해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의 눈에는 완전한 패배로 보이지만 사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위대한 승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사탄과 죽음과 지옥을 이기셨습니다. 근데 이는 십자가에도 “불구하고” 얻으신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전서1:18에서 말했듯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배웠던 것들이 점점 가속도가 붙어가다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서 절정을 이루게 될까요? 이 구약의 신학적인 주제들은 무슨 수로 신약성경에서 완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겠습니까? 왜 십자가는 신약성경과 성경 전체의 중심이 됩니까? 속죄의 다양한 요소들은 무엇이며 그 요소들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가 지켜낸 것은 무엇이며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이번 강의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 가운데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구원의 성취의 대상과 구속의 주관적인 적용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반면에 후자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대한 첫 네 강의에서 우리가 주로 다룬 내용은 구원의 성취의 대상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게 될 몇몇 강의에서는 주로 신자들에게 구원이 적용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른바 우리 안에서 이루어

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반드시 성경적인 균형을 가지고 서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에 초점을 맞추느라 다른 하나를 배제하게 되면 성경의 복음 메시지를 왜곡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속죄라는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속죄라는 주제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의 구속계획에 대한 계시는 창세기3:15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은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하신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그리스도의 발꿈치가 상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가리킵니다. 요한일서3:8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골로새서2:15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받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구약의 전체 역사는 이 위대한 사역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도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것을 자세하게 전합니다.

출애굽과 관련하여, 고린도전서5:7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는 세례 요한의 선포와 함께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5:12에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에 계신 모습이 나오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양에 대한 언급은 요한계시록21:14절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리스도는 구약의 보증 희생제사, 대속, 대속물, 구속 등의 주제를 성취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신약성경의 개념들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는 구약의 신학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없으면 아주 제한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 복음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보여줍니다. 각 복음서마다 서로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하여 읽습니다. 여러분은 이 네 복음서가 공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향하고 그 사건을 둘러싼 모든 것들에 엄청난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의 거의 절반가량이 그리스도의 삶의 마지막 한 주와 그분의 죽음에 관련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신약성경의 나머지는 그리스도의 사역 특히 그분의 속죄사역의 의미를 해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십자가 신학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학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을 통해서 자신에 대하여 계시해 주심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하신 일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주시는 구원도 그분의 성품과 일치해야 합니다. 참된 복음은 이것을 성취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바울이 복음을 가르칠 때 그는 로마서 3:26에서,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이 의로우시면서 동시에 명백하게 불경건한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는 분으로 계시실 수 있습니까? 바로 복음이 이에 대한 유일한 대답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죄에 대한 충분한 심판과 그 형벌을 자신의 백성들의 자리에서 대속물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두심으로서 이루어진 그분의 진노에 대한 만족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인정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엄청난 사랑을 드러내시며 자신의 공의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이 요점과 관련하여 신약성경에서 발견되는 표현과 신학에 대해서 연구할 것입니다. 십자가 신학에 대한 네 개의 주요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희생제사 곧 제사라는 주제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지배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중보자의 역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5:2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희생제사 체계를 가진 구약성경 전체의 경륜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교리의 중심개념은 바로 대속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대신하여 희생하는 속죄를 의미합니다. 대리는 대속물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들의 자리에 서서 그들의 죄를 속하십니다.

이전 강의에서 배웠듯이, 이 속죄하는 제사는 보상 (expiation)과 유효 (expiation)를 포함합니다. 이 두 개념은 중요한 두 개의 신학용어이기는 하지만 간단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보상은 죄를 없애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죄의 책임을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1:5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유효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5:8,9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죄의 이런 측면에 대해서 반대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복음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본성상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하여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려면 이 진노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제거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4:10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합니다.

십자가 신학에 대한 두 번째 주제는 화해입니다. 많은 예 중에서 로마서5:10,11에 나오는 한 예를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해는 속죄와 십자가 신학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화해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적개심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소외되는 것을 끝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우정과 교제를 회복시킵니다. 이것은 정말로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 안에서 반드시 선포되어야 하는 메시지인 셈이죠. 또한 설교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린도후서5:18-20에 있는 바울의 설명을 한 번 들어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므로, 첫번째 주제는 희생제사입니다. 두번째는 화해입니다. 그러면 세번째 주제는 구속입니다. 에베소서1:7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속은 우리의 구원과 값을 주고 우리를 다시 자신에게로 사는 대속물의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 눈에 띄는 개념입니다. 애굽에서의 출애굽 사건 전체가 바로 이 구속에 대한 것입니다. 장자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나 율법뿐만 아니라 룯기와 같은 책에도 나타나는 친척구속자의 개념에도 바로 이와 같은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신약성경에 이르러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보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증으로서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위한 빛을 대신 갚는 책임을 지셨습니다. 신약성경도 역시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이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해 지불된 금액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10:45에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실 때 이는 자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노예에서 구속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네 가지 점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노예상태에서 구속받았습니다. 첫째, 그들은 죄의 노예상태와 죄책과 죄의 오염과 죄의 권세와 같은 것들에서 구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디도서2:14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3:13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마귀의 역사에서 구속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요한일서3:8에 나옵니다. 넷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의 권세에서 구속받았습니다. 히브리서2:14은 “죽음을 통하여 죽

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15장 마지막 부분에도 역시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은 십자가 신학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이며 구속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네번째, 주제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이 주제를 종종 그리스도의 능동적 그리고 수동적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곤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 순종의 두 측면을 구분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입니다. 이 두 용어는 그리스도의 전체 사역을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5:21 마지막 부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성취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이 받아드릴 수 있기 위해서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시는 동안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의 명령을 순종하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순종하셨고 이를 통해 완전한 의 곧 완전한 율법에 대한 순종이라고 인정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는 믿음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전가되고 또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그분의 순종의 행위가 있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을 받으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율법의 형벌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고, 자신의 백성들의 자리에 서서 그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빌립보서2:8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속죄와 십자가 신학과 관련하여 이 순종이라는 주제는 신약성경을 통해서도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두번째 요점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의 모든 필요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네 가지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첫째, 희생제사는 우리가 가진 죄책과 진노라고 하는 문제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화해는 적대감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에 대한 우리의 문제에 대응합니다. 구속은 노예상태의 문제에 대응하고 순종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대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신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며 그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가져다줍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조차도 자신의 백성들을 구할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그저 그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선포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가 인정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참된 복음의 메시지에 필수불가결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그리스도께서 이룬 신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시편85:10에서 부르는 것을 바로 십자가에서 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셋째로, 이 강의에서, 우리는 속죄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속죄의 축복을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이것은 자주 오해를 받는 교리입니다. 알미니안주의라고 불리는 신학의 체계가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하신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 잘못된 가르침과 반대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보게 되겠지만 이 내용은 속죄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 교리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영적인 무능력과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자신의 백성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보다 넓은 맥락 속에 있는 주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라는 질문을 할 때 잠시 이 질문의 범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먼저 이렇게 하면 질문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복음은 세상에 있는 모든 마지막 사람에게도 선포되어야 합니다. 구원은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없이 설교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충분성은 전혀 의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에 여기에 언급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속죄의 범위입니다. 이 축복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죠. 이 속죄의 범위는 속죄 그 자체의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단지 가상의 가능성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분은 실제로 자신이 택한 백성을 위하여 구원을 확실하고 절대적으로 보장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지는 않는다고 믿기

에 그 질문은 “누가 속죄를 제한시켰는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답은 “하나님께서 속죄에 대한 한도를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불신의 죄와 그에 대응하는 믿음의 선물이 속죄 그 자체에서 보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불신의 죄에 대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믿음의 선물을 얻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부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외의 남은 세상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중지불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도 언급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의 값을 지불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어떤 불신자들은 지옥에서 그 동일한 죄에 대한 값을 다시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전체 성경은 이 개별주의 (particularism)를 가르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만 속죄를 제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성경에도 이 사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서 나온 계획을 따라 친히 한 특정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7:6-8에는,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전체 제사제도도 같은 진리를 가르칩니다. 속죄를 의미하는 제사들은 특정한 한 민족에게만 적용되었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이에 관한 수없이 많은 다른 성경본문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52장 마지막 부분인 13절에서 이사야53장 전체에 이르는 본문에 어떤 대명사가 사용되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신약성경에서도 첫페이지부터 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1:21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10:14,15에서 같은 내용을 가르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17장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에서도 주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바울도 사도행전20:28에서 에베소교회의 장로들에게 다음과 같은 임무를 맡깁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더 많은 본문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가 전하는 주장을 제시하면서 이제 이 다양한 가닥들을 한데 묶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17세기 영국의 청교도였고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했던 존 오웬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시고 그가 말하는 내용을 잘 따라가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한 성경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부는 자신의 진노를 부으셨고 성자는 그 진노를 겪으시되 1)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혹은 2) 어떤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혹은 3) 모든 사람들의 어떤 죄를 위하여 감당하셨다. 이 경우 먼저 마지막 케이스가 사실이라면”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죄를 위하여 형벌을 받으신 것이 됩니다. 이는 곧 “모든 사람들에게는 해결해야 할 죄가 있다는 의미가 되고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경우는 제거할 수 있다. “둘째로, 만약 두 번째 경우가 맞다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택자들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그들 대신에 당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옳은 입장이다” 하지만 셋째로 알미니안들이 말하는 것인데 “만약 첫번째가 사실이라면” 곧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한 형벌에서 자유롭지 못한가? 라는 물음에 여러분은 불신앙 때문이다”라고 대답한다. 오웬은 이렇게 말한다. “그렇다면 나는 이 불신이 죄냐 혹은 죄가 아니냐? 고 묻겠다. 만약 죄가 맞다면 그리스도는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으셨거나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왜 이 불신은 그리스도께서 위해서 죽으셨

던 다른 죄보다 더 그들을 막아서야 하는가? 하지만 만약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위하여 죽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해서도 죽지 않으셨다”

여기서 오웬이 성경적인 주장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성경적인 주장이 가진 힘을 볼 수 있습니다. 속죄의 범위에 관한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답은 그리스도는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경험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남편이 자신의 부인에게 자신은 그 부인을 사랑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다른 c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끔찍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볼 때 자신의 신부를 위한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을 보는 것이지 모호하고 정의되지 않은 인류라고 하는 집단에 대한 포괄적인 사랑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그들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내어줄 때 그분은 자신의 구체적인 백성들을 자신의 마음과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데 대단한 도움이 됩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히 내 죄를 위한 속죄를 지키고 계셨으며 사랑 안에서 그 죄를 나를 위하여 지키고 계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강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역과 그분의 속죄사역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속죄의 사역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복음은 성경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는 복음의 심장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위대한 사건에 대해서 탐구할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신 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이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